

체신부,  
신설 정보통신국의 사령탑

鄭弘植 국장



국내 정보통신사업의 육성 발전과 국가정보화 촉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체신부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기획과, 정보통신업무과, 정보통신기술과,  
전산망과 등 4과 체제로 된 정보통신국을 지난 1월 신설했다.  
이번호 “정보통신사업과 국가기간전산망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통신국의  
사령탑 정홍식 국장을 초대하였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후 행정고시에 합격,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관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전자·통신·정보산업을 담당한 정국장은 최근까지  
전산망조정위 사무국장을 맡아왔다.……편집자註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우선  
 일반국민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하여  
 사회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한편 정보  
 통신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해나가며, 정보화의 순기능을  
 최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신설된 정보통신국에 대해 업계의 기대가 큰데 초대 국장으로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계획과 방침은?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은 국가사회의 기반구조로서 다른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도화하는 데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성장 유망산업분야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분야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정보통신국이 신설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정책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할 정보통신국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새로운 각오로 우리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우리 나라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척 많습시다마는 저로서는 크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일반국민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하여 사회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정보통신산업의 구조를 고도화 해나가야 하며, 셋째로는 정보화의 순기능은 최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가지 측면의 대책이 동시에 그리고 유기적으로 강구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보통신국에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정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금년도 정보통신국 업무계획은 기존에 확정된 바 있는 계획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사회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국가기간 전산망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행정전산망사업을 비롯하여 금융전산망, 교육·연구전산망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므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육성·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모하고 지역사회의 정보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와 이를 위한 정보통신 단말기를 대량 보급하므로써 일반국민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 산업의 수요 기반을 조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정보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정보통신 사업을 육성하고 정보통신기술개발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체신부에서는 그동안 민간의 활력과 창의력을 통해 정

보통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통신사업의 민간참여 범위를 넓히고, 국제정보통신사업에도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요금 감면제도도 더욱 확대함은 물론 정보통신진흥자금을 조성해서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위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연구개발 조직도 확대해 나가며, 민간의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정보문화 확산사업을 보다 내실화해서 서울중심에서 지방으로 또 정부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뒷받침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의 표준화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보화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정보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보화에 대비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지역정보화가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만큼 중앙부처중 유일하게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체신부가 지방 자치단체의 기반확립 차원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책들을 적극 펴나갈 생각입니다.**

▶지방자치의 기반확립을 위해서 지역정보화가 필수요소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은?

—금년 상반기중 지방의회가 구성될 것이 확실한 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화시대로 본격 진입하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서울 등 대도시 위주로 정보화가 진전되어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보화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또한 지역단위 정보화 추진이 미흡하여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지역의 정보화는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체신부에서는 전국민이 누구나 보다 가까이에서 손쉽게 생활정보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역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정보화 수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 영상매체 및 지방 강연회등을 통한 정보문화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6월에 개최되는 “정보문화의 달”행사를 지금까지는 서울중심으로 개최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지방중심의 행사를 적극 발굴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체신부는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거점으로 가칭 지역정보통신센타와 단위정보센타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지역정보통신센타는 지방대도시를 중심으로 컴퓨터 및 정보통신에 관한 대중교육과 정보문화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기능을 갖도록하고, 통

신시설임대 및 부가통신서비스,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각종 통신기기 판매장을 제공하는 등 전기통신 관련 상담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고루 분포된 우체국을 단위지역 정보센터로 구축하여 이를 거점지역 정보센터와의 연계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단위지역 정보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보이용기술 교육 및 홍보, 지방특산물 유통알선, 지방문화홍보 등의 활동을 벌이며, 장차 지역정보 DB구축, 정보통신시설 임대 등을 통하여 지역정보화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일산·분당 등 신도시 지역에도 종합정보통신센터 건물을 인텔리전트빌딩으로 건립하여 최첨단 뉴미디어서비스를 보급하여 미래의 통신시범도시로 운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로, 낙후·소외지역 주민들과 농어촌지역민들의 정보통신기기 이용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정보화를 위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8개 체신청 관할지역에 농어촌 컴퓨터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용 컴퓨터의 보급수량에 비하여 이를 지원할 컴퓨터 지도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 동·하계 방학기간에 계절정보문화교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이와같은 계획들을 차질없이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없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지역구심체로 각 지방체신청 소재지에 지역내 주민, 상공인, 대학인, 언론인, 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 정보화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각종 정책건의를 통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

하며,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활동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게 되면 정부의 중앙부처중 유일하게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체신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반확립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정보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통신사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경쟁국들과 대비해 볼 때 아직도 많은 투자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는 당분간 경쟁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민간기업의 진입제한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근들어 많은 기업들이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투자를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중복투자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할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신부에서는 정보통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늘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경쟁국들과 대비해 볼 때 아직도 많은 투자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간업체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독점체제일 때보다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일부에

서는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투자로 잃는 손실보다 경쟁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보통신사업을 자유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투자를 우려하여 미리 정부가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또 그 조치가 강하게 시행될 때 오히려 투자의

비효율성을 가져온 경우(중화학공업투자)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정보통신업계의 동향과 진전을 보아가며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경쟁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민간기업의 참입제한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입니다.

## 민간위주로 정보통신사업을 육성코자 하는

### 체신부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업무의

### 협회위탁등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내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아울러 민간업계의 대표기구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진흥협회에 거는 기대는?

-정보통신사업분야는 다양한 수요에 부응해야 하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의 주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민간업

체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보통신국에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정단체이며 민간업계의 대표기구인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그동

안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훌륭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위주로 정보통신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체신부의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체신부에서도 이에 상응하여 정부업무의 협회위탁 등 협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체신부에서는 정보통신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94년까지 천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자금을 조성, 정보통신산업체의 기술개발 자금등으로 장기저리의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최근 업계 및 관련 기관

• 단체의 주요관심사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진흥법의 통과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또 이와 관련해 조성될 정보통신진흥자금의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 한 말씀?

- 정보통신진흥법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높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사업은 투자회임 기간이 길고 많은 투자가 필요하므로 업계에서 자금문제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체신부에서 이러한 정보통신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진흥자금을 조성해서 장기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진흥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법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는데 금년중에는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 조성될 정보통신진흥자금은 체신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통

신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94년까지 천억원 규모로 만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만들어지면 정보통신사업과 데이터베이스업, 정보통신소프트웨어업을 비롯하여 정보통신기업체의 기술개발 자금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사업의 육성·발전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학·연·관 등 각계 각층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민간업계에 바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사업은 유망성장산업 분야이고 다른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분야입니다.

따라서 미래 정보사회에서는 이 정보통신사업이 핵심사업분야로 대두될 것이 확실하며 주도적인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세계각국은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도 체신부를 비롯하여 관계부처에서 육성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세계무역의 자

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도 이 정보통신시장의 개방문제를 주요한 의제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업계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사업의 육성·발전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학·연·관 등 각계각층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저자신 역시 정보통신사업을 해나가는 데 어려운 점이 나 정부가 해야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